기사 분야 : 문화/생활
등록 일자 : 2002/01/20(일) 17:24

[아하 그약]얀센 '리스페리돈' 릴리 '자이프렉사'

“사람들이 나만 보면 수군거려요. 무서워요.”

평소에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불안에 떨며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할 때가 있다. 자기를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 하며 도통 집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.

정신분열병은 연간 입원환자가 2 만 2000 여명을 헤아린다. 2000 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입원진료를 많이 받는 질병으로서 치질 백내장 폐렴 맹장염에 이어 5 위를 차지했다.

정신분열병은 뇌 속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이 깨지면서 생긴다. 이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을 약물로 교정하는 것이 바로 정신분열병의 치료법이다. 이는 당뇨병 환자에게 부족한 인슐린을 투여해 몸속 혈당을 조절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.

그러나 약물치료를 중단하면 쉽게 재발한다. 첫 발병 뒤 약을 꾸준히 복용한 사람 중 병이 재발할 가능성은 20 25%지만, 중단하면 70 75%로 높아진다. 이 때문에 장기간 약물을 복용해야 하고 그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다.

과거에 많이 사용하던 할로페리돌 클로르프로마진 등의 약물은 정신분열병의 감정 둔화나 대인기피증 등의 증상에는 효과가 없었다. 몸이 뻣뻣해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등 부작용도 많았다. 복용한 환자의 15 20%는 쉴새없이 입술을 오물거리거나 혀를 전후좌우로 움직이는 ‘ 지연성 운동장애’ 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앓았다.

최근 개발된 약물은 이 같은 단점을 크게 개선했다. 또 감정 둔화나 대인기피증 등의 증상에도 효과가 있다. 최신 치료제로는 △얀센사의 리스페리돈 △릴리사의 자이프렉사 △아스트라제네카사의 세로퀼 등이 있다.

정신분열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‘ 꾸준함’ 이다. 증상이 없어졌다고 약을 중단하면 재발하기 십상이다. 재발이 반복되면 뇌는 점점 손상되고 환자의 건강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진다.

가족의 도움도 절실하다. 최근 정신분열병을 앓았던 일본의 한 30 대 주부가 쓴 투병기 ‘ 마음의 병을 앓는다는 것은 어떤 것? 정신병 체험자로부터’ 가 일본 서점가를 강타하고 있다. 실명을 밝힌 이 주부는 “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, 지역사회 등 넓은 의미에서의 ‘ 가족’ 이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을 구할 수 있다” 고 강조한다.

권준수(서울대병원 정신과 교수)/의학교육사이트
버추얼엠디(www.virtualmd.co.kr) 제공

차지완기자 maruduk@donga.com